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 운명이라고 한다. 피할 수 없고, 빠져 나올 수 없다는 뜻이다. 거기에 빠진 개인도 있고, 가정과 가문도 있고, 세상에는 그렇게 운명에 빠진 나라들도 너무 많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똑같은 상황이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나라와 부모가 노예였다. 강가에 버려졌다가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어 왕궁에서 자랐지만 결국 한순간의 실수로 살인자가 되어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다. 본문의 모세는 80세의 노인이고, 양을 치며 겨우 먹고 살던 사람이었다. 누가 봐도 참 비참한 운명이었다. 모세도, 이스라엘도 그들의 조상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 지난 주의 요셉까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한 시대의 하나님의 증인들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었다.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살았고,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것이다. 이 시대의 우리의 현실이고, 이 시대와 미국의 현실이다. 모세 같은 한 사람만 일어나고, 모세를 통해 세워진 여호수와 갈렙과 같은 램넌트들이 일어나면 회복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붙잡고, 누리면 된다(신33:7).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처럼 구원했고, 모세처럼 쓰실 것이고, 모세에게 주신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1.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축복부터 회복해야 한다(과거 문제 해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원래 출애굽기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운명 같은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을 기록한 성경이다.
 - 1)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한 것이 구원이다.
 - ① 내 스스로의 지식이나 노력, 행위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모든 종교는 내 행위와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거짓말이다. 교회까지 이려고 있다.
 - ② 모세가 자기 인생을 구원한 것이 아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쓰임 받은 것이다.
 - 2)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 ① 운명 같은 실패와 고통과 저주에 빠져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1-5절).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영세 전에 선택하고, 찾아오신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다. 지금도 찾아오신다(계3:20). 내게도, 또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그 날 일수도 있다(고후6:2).
 - ②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다(6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라” 였다. 가나안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한다. 운명, 실패, 고난이 끝나고, 너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했다(엡1:3-5).
 - ③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했다(8절)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된 것이다(사7:14, 요14:6, 요일3:8).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아들이 된다(요1:12, 롬8:15-17). 이 축복이 복음이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모세의 조상들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렸다. 이스라엘과 모세가 이것을 못 누리고, 계속 눌러 산 것이다(마10:6)
2.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를 살릴 자로 세우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현재 문제 해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를 증인으로 세우고, 나를 나 같은 사람과 세상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다.
 - 1)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고 했다(10절). 모세가 또 오해를 하고,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겠냐고 했다(11절)
 - 2) 세가지를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세가지다(전도와 선교의 키).
 - 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12절). 내가 그리스도께 쓰임 받고자 할 때 그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이다. 전도할 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때도 그 분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무 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사단이 어떤 문제를 보내도 문제가 될 수 없다.
 - ② 마침내 이스라엘이 빠져나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12절) 모세의 아픔도, 눈물도, 절망도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모세를 통해 살아난 사람들도 증거가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증거로 바꿀 수 밖에 없는 절대 이유다.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로 풀라(고후5:20)
 - ③ 바로 왕에게 가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오직 “내 백성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라고 했다(18절)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골1:13-14).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그리스도를 말한다. 내가 깨닫고 만나고 누리는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사람이 살아난다.
3. 이 모세를 위해 준비된 미래이다(미래 문제 해결).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다(영원과 성소의 응답). 왜 흥해를 거치고, 광야를 거치게 하셨을까? 쉽게 가는 길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만든 것이다.
 - 1) 매년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출23:14-17).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만들라는 것이다.
 - ① 유월절은 내가 모든 운명에서 해방 받은 비밀이다. 피 바를 때 모든 저주가 넘어가고, 흑암이 꺾였다(출12:27).
 - ② 오순절은 첫 열매의 축복이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다. 이 축복으로 뒤편지 하라(빌3:3).
 - ③ 장막절은 영원한 열매의 축복이다. 우리의 기도, 헌신, 전도와 선교는 영원한 영광이 된다(계8:3, 딤후4:8)
 - 2) 언약궤를 만들어 항상 앞세우라고 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할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다(출25:10-22). 그 언약궤 안에 세가지를 넣으라고 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아론의 싹난 지팡이다.
 - ① 십계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사랑을 잡고, 실천해보라는 것이다(갈3:24, 롬13:8-10).
 - ② 만나의 싹난 지팡이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다.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대적이 꺾였다(벧전2:9)
 - ③ 성막을 만들어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라고 했다(창25-40장). 이것이 영원히 누릴 성소의 축복이다.
 - ①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이고, 그 시간과 공간이다.
 - ② 성막 맨 앞에 있는 첫 성소는 그리스도 속죄 제물이 되어 영원히 성취하신 구원을 의미한다(히9:12) 두 번째 성소에는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 승리하는 비밀이다. 한 가운데 분향단(오늘의 기도), 우측에 떡상(오늘의 말씀), 좌측에 금촛대(오늘의 전도)이다.
 - ③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는 이 성막을 앞세워 가고, 멈출 때는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모이라고 했다. 그 성막 위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출40:36), 이스라엘이 모든 증거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했다(출40:38).

결론-모세를 세우시고 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구원과 누림과 미래가 우리 것이 되기를 축복한다.